



코로나19 뉴스 기사의 품질에 대한 탐색적 분석

국내 주요 종합 일간지 및 방송사 기사 내용분석

이호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허세영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신지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양윤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김인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조경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김현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Quality of COVID-19 News Articles*

A Content Analysis of Major Daily Newspapers and Broadcasters in South Korea

Ho Geun Lee**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young Huh***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ieun Shin****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 Ju Yang*****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no Ki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3A2A02090597)(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3A2A02090597)).

** lhk4274@snu.ac.kr

*** seyoung723@snu.ac.kr

**** humpo11@snu.ac.kr

***** snujuju@snu.ac.kr

***** inno.k@snu.ac.kr

***** kwcho6@snu.ac.kr

***** hyunsuk.kim@snu.ac.kr, corresponding author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ng Won Cho*****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 Suk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news coverage of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adhered to the standards of "quality journalism." Additionally, the study aimed to gauge compliance with the ethical norms required when reporting on infectious disease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934 COVID-19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December 31, 2019, and May 9, 2022, by 14 media outlets, including 10 national daily newspapers and four national television stations. Our content analysis focused on four main areas: (a) the quantity and transparency of sources used in the articles, (b) the diversity of perspectives represented and analysis-centered (vs. event-centered) coverage, (c) problematic practices in Korean journalism, and (d) alignment with the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guidelines (IDRG) established by three Korean journalist associations. To contextualize our findings, we compared them (excluding those related to IDRG) with a previous study that analyzed front-page articles from the same Korean national daily newspapers and three internationally renowned foreign newspapers (The New York Times, The Times, The Asahi Shimbun).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ile the number and transparency of sources in COVID-19 news articles were similar to those in the front-page articles of the Korean newspapers, they fell short when compared to the foreign newspapers. The Korean newspapers' COVID-19 articles showed similar levels of perspective diversity and coverage depth as their front-page articles. However, they lacked the depth that the foreign newspapers exhibited. Most articles either did not adopt a particular perspective or, when they did, typically offered a single perspective. Furthermore, the majority of articles were event-centered, focusing their reporting on individual cases and conveying information in a straightforward manner. Problematic practices in Korean journalism, such as using direct quotations in headlines, were similar to those found in the front-page articles of the Korean newspapers and were more prevalent than in the foreign newspapers. Although the number of articles providing efficacy i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prevention and treatment increased over time, a significant number of articles focused solely on threat information, with few presenting efficacy information alongside threat information. Lastly, a sizable portion of the articles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of individuals confirmed to have COVID-19, while another sizable, yet distinct, proportion utilized sensational languag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llumina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quality of journalism in South Korea, particularly during crisis situations such as a pandemic, and provid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e field.

Keywords: COVID-19, News, Content Analysis, Quality Journalism, Journalistic Ethics and Standard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국내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이른바 ‘좋은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의 일반적인 기준과 감염병 보도에 특수하게 요구되는 윤리 규범에 비추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14개 언론사(전국 종합 일간지 10곳, 방송사 4곳)에서 보도한 코로나19 관련 뉴스 기사 934개를 수집, (가) 취재원의 양과 투명성, (나) 관점 다양성 및 분석 중심성, (다) 한국 언론의 부정적 관행, (라)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 관련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선행 연구(김경모 등, 2018)에서 분석한 국내 전국 종합 일간지 10곳 및 주요 선진국의 대표 일간지 3곳(예: 뉴욕 타임스) 1면 기사와 비교했다(<감염병 보도준칙> 관련 변인 제외). 연구 결과, 코로나19 기사에 사용된 취재원의 양과 투명성은 대체로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와 비슷했고, 해외 대표 일간지의 1면 기사에 비해서는 적은(낮은) 편이었다. 또한 대부분 관점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하나의 관점만을 다루었으며, 시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단순 사실 정보 전달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기사는 관점의 다양성 및 분석 중심성 측면에서도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와는 비슷하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제목에서의 직접 인용구 사용 등 한국 언론의 부정적 기사 작성 관행 역시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와 비슷한 정도로 발견되었으며,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보다는 다소 더 두드러졌다. <감염병 보도준칙>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험 정보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위험 정보를 제시할 때 효능감 정보를 함께 제시한 경우는 드물었다. 마지막으로, 적지 않은 수의 기사가 확진자 신상 관련 정보를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한국 언론의 기사의 품질, 특히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기사의 품질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했으며, 관련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했다.

핵심어 : 코로나19, 뉴스, 내용분석, 기사의 품질, 보도 윤리와 규범

1. 문제제기

코로나19 팬데믹은 언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에 전문가들이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공백을 틈타 허위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이 발생하면서, 언론은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를 신속히 보도하고,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치료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가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등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받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국내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팬데믹 시기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비추어 어떠한지, 이른바 ‘좋은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의 일반적인 기준(김경모·박재영·배정근·이나연·이재경, 2018; Kovach & Rosenstiel, 2021; Pew Research Center, 2005)과 감염병 보도에 특수하게 요구되는 윤리 규범(한국기자협회, 2020)을 바탕으로 살펴봤다. 기존의 코로나19 뉴스 내용분석 연구는 대부분 팬데믹 초·중반기의 기사를 대상으로 언론이 코로나19 사안을 어떤 프레임(예: 위기 대처, 책임 귀인: 박주현, 2020) 내지는 어떤 주제(예: 정부 대응, 개인 방역, 경제 위기: 함승경·김혜정·김영욱, 2021)로 보도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에서부터 팬데믹의 정점을 지나 방역 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되기까지의 기간(2019년 12월 31일~2022년 5월 9일)에 걸친 기사를 대상으로 뉴스의 품질에 초점을 맞춘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시기 코로나19 보도 전반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공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신속·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기반한 공적 숙의를 거쳐 여론이 형성되고 나아가 공동체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으며, 언론은 이러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Kovach & Rosenstiel, 2021). 기사의 품질은 언론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언론이 공적 사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다양한 관점을 투명하고 균형 있게 다룰 때, 즉 품질 높은 기사를 생산할 때 비로소 공론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Lacy & Rosenstiel, 2015).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사의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시기 국내 언론이 좋은 기사를 생산했는지 탐색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14개 언론사(전국 종합 일간지 10곳, 방송사 4곳)에서 보도한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수집, (가) 일반적으로 좋은 기사의 구성 요소로 논의되어온 변인(예: 취재

원 투명성: 김경모 등, 2018; Kovach & Rosenstiel, 2021; Pew Research Center, 2005), 그리고 (나) 감염병 보도 맥락에서 특히 요구되는 보도 윤리 규범 관련 변인(예: 선정적 표현 사용 지양: 한국기자협회, 2020)을 내용분석했다. 그런 다음, 일반적인 기사 품질 변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뉴스 기사가 선행 연구(김경모 등, 2018)에서 내용분석한 국내 주요 종합 일간지 및 주요 선진국의 대표 일간지 1면 기사와 비교해 어떠한지 살펴봤다. 더불어 매체별 보도 기사의 품질 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방송 기사, (나) 신문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신문 기사, (다) 온라인에만 보도된 신문 기사를 비교했다.¹⁾

2. 이론적 배경

한 언론사가 ‘좋은’ 저널리즘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크게 (가) 언론사의 독립성과 권력에 대한 감시, (나) 언론사의 규모와 재정 투입 정도, (다) 언론사가 생산하는 기사의 품질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경모 등, 2018). 기사 자체에 주목하는 세 번째 측면과 관련, 저널리즘 연구자들은 좋은 기사는 어떤 메시지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개발해왔다. 좋은 기사의 요건으로 앤더슨(Anderson, 2014)은 가독성, 맥락, 인과성, 비교성, 복잡성, 정확성을, 레이시와 로젠스탈(Lacy & Rosenstiel, 2015)은 표현력(전달력), 신뢰성, 다원성, 정보의 깊이와 넓이, 종합성, 공공성, 지역적 연계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PEJ)는 투명 취재원 수, 관점 다원성, 이해 당사자 수를 좋은 기사의 계량적 지표로 제안했다(Pew Research Center, 2005). 김경모 등(2018)은 PEJ 지수에 한국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 작성 관행(예: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등을 추가한 평가 기준을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과 외국 주요 언론의 기사의 품질을 비교분석했다. 코로나19 뉴스 기사의 품질을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적인 기사의 품질 지표에 더해, 감염병 보도의 윤리 규범에 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맥락에 적용 가능한 계량적 지표를 추가해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1)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신문 기사의 경우 온라인 전용으로 보도된 기사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방송사는 온라인 전용 기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코로나19 기사의 품질 평가 기준 각각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 프로젝트가 기사의 품질 이론과 관련해 어떤 의의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본 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주요 선행연구는 공히 정보의 깊이와 넓이, 공공성, 정확성 등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좋은 기사의 구성 요소로 강조되어온 모든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본 연구의 주요 측정 변인인 PEJ 지수는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며 (Anderson, 2014; Lacy & Rosenstiel, 2015), 감염병 보도의 윤리 규범 관련 변인 역시 기존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어온 바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사의 품질 평가 기준에 무엇이 추가되고, 무엇이 통합되어야 하며, 무엇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본 연구는 코로나19 보도 맥락에서 좋은 기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다고 간주되는, 따라서 코로나19 기사의 품질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위한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변인들에 대한 기존의 측정 방법을 적용해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기사의 품질 전반에 대한 이론을 심화 확장한다거나 기사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 보도라는 특수한 맥락에 적용 가능한 좋은 뉴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살펴본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1) 일반적인 뉴스의 품질

PEJ가 제안한 좋은 기사의 요건, 즉 취재원 투명성, 관점의 다양성, 이해 당사자의 다양성은 기사 종류 및 주제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기사에 대한 독자의 평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예: 공신력; Sternadori & Thorson, 2009). 본 연구는 PEJ 지수에 한국 언론의 특수한 관행 등을 추가한 김경모 등(2018)의 분석틀을 채택해 국내 언론의 코로나19 기사가 이러한 일반적인 품질 기준에 비추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외 일간지를 대상으로 유사한 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김경모 등, 2018) 결과와 비교해 그 상대적인 품질을 가늠하고자 했다.

(1) 취재원 특성

기사 내용의 핵심 근간이 되는 취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특히 취재원이 사람일 경우 이를 (준)실명으로 밝히는 것은 기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김경모 등, 2018; Kovach & Rosenstiel, 2021). 국내 언론사 역시 윤리강령/취재보도준칙에서 취재원의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 조선일보, 2017; 한겨레, 2020). 하지만 이러한 윤리 규범과는 달리, 국

내 언론사는 미국·영국 등 해외의 주요 언론사에 비해 투명 취재원을 덜 사용하고 익명 취재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김경모 등, 2018; 이나연, 2018). 불가피하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해야 할 때는 해당 취재원을 왜 익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다면 기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익명 취재원 사용 이유를 제시한 기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이나연·김창숙·김지현, 2021; 정은령·최지수·박유진, 2020). 본 연구는 취재원 투명성과 관련한 국내 언론의 이러한 경향이 코로나19 보도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봤다.

일반인 취재원 활용 정도 역시 기사 품질의 중요한 지표이다(김경모 등, 2018). 특히 코로나19 보도의 경우, 코로나19 자체는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영향,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코로나19와 무관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코로나19 관련 경험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사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보도했는지, 다른 기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취재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김경모 등, 2018)을 보였는지 분석했다.

취재원의 전문성 또한 중요한 기사 품질 평가 기준이다. 특히 감염병 관련 방역, 백신, 치료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의학·생물학·보건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염병 보도에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성 있는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게 강조된다(International Media Support,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 기준에 비추어 코로나19 뉴스 보도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기사에서 의료보건 전문가 취재원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분석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기사에서 (가) 투명 취재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나)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경우 그 이유를 밝혔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기사에서 일반인 취재원 및 의료보건 전문가 취재원의 비율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2) 관점 다양성과 분석 중심성

다른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보도 역시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예: 대국민 지원금 및 방역패스 정책)를 다룰 때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김경모 등, 2018). 본 연구는 국내 언론의 코로나19 기사가 얼마나 다양한 관점을 소개했는지 분석했다.

기사의 내용이 얼마나 분석(vs. 사건) 중심적인지(Barnhurst & Mutz, 1997) 또한 기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사안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해당 사안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함의가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맥락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기사가 더 심층적인, 좋은 기사라 할 수 있다(김경모 등, 2018; Lacy & Rosentiel, 2015).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국내 언론은 해외 주요 언론과 비교해 단순 사실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사건 중심 기사의 비율은 높은 반면, 사실 정보와 더불어 맥락을 함께 전달하는 분석 중심 기사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모 등,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코로나19 보도에서도 발견되는지 살펴봤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 두 연구문제를 탐구했다.

연구문제 3. 코로나19 기사에서 관점이 없는 기사, 하나의 관점만을 소개한 기사, 둘 이상의 관점을 소개한 기사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4. 코로나19 기사에서 사건 중심 기사와 분석 중심 기사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3) 한국 언론의 부정적 관행

본 연구는 기사의 신뢰도를 낮추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한국 언론 특유의 부정적인 표현 관행(김경모 등, 2018)이 코로나19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지 탐구했다.

첫째, 직접 인용구에 주관적 술어를 사용했는지 살펴봤다. 취재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기자의 주관이 반영된 술어, 가령 ‘촉구했다’, ‘우려했다’와 같은 술어를 사용할 경우, 이는 기자가 취재원의 의도와 감정을 추측한다는 점에서 ‘말했다’, ‘밝혔다’와 같은 술어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기사의 객관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김경모 등, 2018; 이나연, 2018).

둘째, 부정적인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발언의 당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했는지 분석했다. 익명으로 된 부정적 내용의 직접 인용구를 사용한 기사에 노출되면 수용자들은 해당 내용이 실제 취재원의 발언인지, 혹은 기자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가상의 취재원을 만들어낸 것인지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사의 공신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김경모 등, 2018).

셋째, 무주체 피동형 문장을 사용했는지 살펴봤다.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피동형을 통해 문장의 주어라 적시하지 않아 발언이나 행위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을 의미한다(예: ‘~로 알려졌다’, ‘지적된다’). 이러한 문장은 기자의 주관적 판단을 일반화하기 위해 판단의 주체를 생략함으로써 해당 의견이 보편적 여론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발화된 것처럼 서술하거나, 혹은 구체

적인 취재원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된다(김경모 등, 2018).

넷째, 기사의 제목에 직접 인용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했다. 직접 인용구를 기사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안의 다양한 측면 중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특정해서 드러내게 되고, 발언 중 일부만을 제목으로 사용해 전반적인 맥락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사 본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인용구를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기사 본문에 없는 내용을 큰따옴표를 써서 직접 인용구인 것처럼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김경모 등, 2018; 이니언, 201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5. 코로나19 기사는 직접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익명 취재원의 부정적 직접 인용구, 무주체 피동형 문장, 제목의 직접 인용구를 각각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가?

2) 감염병 보도의 윤리규범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 정확한 보도만큼 중요한 것은 과도한 공포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외 정부기관(예: 보건복지부), 국제기구(예: 세계보건기구), 국내·국제 언론인조직(예: 한국기자협회, 국제기자연맹) 등에서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대응 방법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선정적 표현을 사용해 불안감을 높이거나, 확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범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사의 일반적인 품질 평가 기준에 더해,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을 바탕으로 감염병 보도에 특수하게 적용될 수 있는 품질 요건들을 내용분석했다.

(1) 위협 정보와 효능감 정보

감염병 내지는 재난과 같은 ‘위험’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할 때는 각 개인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당 위험을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 즉 효능감 정보(efficacy information)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보건복지부, 2016, p. 125). 확장병행과정모형(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Witte, 1992)에 따르면,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자신에게 큰 위협(threat)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효능감은 낮을 때, 해당 위협에 의해 촉발된 공포(fear)를 통제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공포 통제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면, 해당 위협과 관련된 설득 메시지를 회피하거나 메시지 내용에 저항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위협 지각과 효능감 지각 모두 높을 경우, 사람들은 공포가 아닌 위

험(danger)을 통제하고자 하게 된다. 즉,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활성화되어 어떻게 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관련 설득 메시지의 내용을 받아들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Witte, 1992). 경험적 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위협 소구 메시지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위협 정보와 함께 해당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정보, 즉 정적 반응 효능감(positive response efficacy)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때 설득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igsby & Albarracín, 2022).

코로나19 보도와 관련해 제정된 규범적 가이드라인 또한 효능감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감염병 보도준칙>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1-가)하고,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1-나)하는 것을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기자협회, 2020). 언론 관련 국제 NGO 역시 코로나19의 위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면 질병의 확산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등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조한다(International Media Support, 202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했다.

연구문제 6. 코로나19 기사에서 위협 정보 및 효능감 정보의 제공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2) 확진자 신상정보의 공개

<감염병 보도준칙>은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5-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기자협회, 2020).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는 확진자 개인들, 혹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고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진자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공개되어 인권 침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김지현, 2022). 본 연구는 코로나19 뉴스 기사가 <감염병 보도준칙>을 따라 확진자 신상정보 언급을 얼마나 지양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권 보호라는 좋은 뉴스의 품질 요건을 얼마나 잘 충족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7. 코로나19 기사에서 확진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기사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3) 자극적 표현의 사용

<감염병 보도준칙>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7-가)

과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7-나)을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적시하고 있다(한국기자협회, 2020). 같은 맥락에서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2021)의 코로나19 백신 보도 가이드라인 또한 기사 제목에서 선정주의(sensationalism)와 낚시 보도(clickbaiting)를 지양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했다.

연구문제 8. 코로나19 기사에서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기사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표집방법

내용분석 대상 코로나19 뉴스 기사는 (가) 관련 보도가 처음 등장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나) 네이버(Naver) 언론사 선정(PiCK) 기사, 즉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주요 뉴스로 직접 선정한 코로나19 관련 기사로 상정했다. 분석 대상 기간을 2022년 5월 9일까지로 정한 이유는 이날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주체가 바뀌는 시점이며, 또 이때를 즈음해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예: 5/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되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기사를 네이버 언론사 PiCK 기사로 국한한 이유는 언론사가 직접 코로나19 관련 주요 뉴스로 선정한 기사이므로 코로나19 보도의 핵심적인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전국 종합일간지 10개(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김경모 등(2018)의 연구에서 분석한 일간지와 동일함) 및 방송사 4개(KBS, MBC, SBS, YTN)를 선정했다.

내용분석 대상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검색을 이용해 1차적으로 수집한 후, 이들 중 네이버 언론사 PiCK 기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표집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빅카인즈에서 기사 제목에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관련 키워드(총 154개; 코로나19와 직결되는 ‘핵심 키워드’ 15개 및 그 외 ‘일반 키워드’ 139개; <부록> 참조)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를 검색했다.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된 기사들 중 기사에 등장하는 명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사(텍스트 랭크 [TextRank] 알고리즘을 이용해 추출; 빅카인즈 제공)가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와 일치하는

기사만을 분석 대상 기사로 표집했다. 이러한 검색 절차 및 기준을 채택한 이유는 기사 표집 과정에서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기사를 찾기 위해 기사 '제목'을 검색 타겟으로 삼되(정밀도), 코로나19 기사지만 검색 과정에서 누락되는 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색어를 넓게(154개 검색어) 설정하고(재현율), 마지막으로 기사 본문의 핵심 내용이 코로나19와 직결되는 기사만을 선택함으로써(정밀도), 정밀도와 재현율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내용분석 기사들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빅카인즈 검색 과정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사는 제외했다: (가) '문화' 혹은 '스포츠' 기사로 분류된 기사, (나) '중복' 혹은 '예외'(예: 포토기사)로 분류된 기사, (다) 보도일자, 언론사, 제목, 작성자가 일치하는 기사(예: 방송사 뉴스에서 같은 날 아침/저녁 시간대에 동일한 기사를 보도한 경우). 이상의 과정을 거쳐 빅카인즈에서 언론사명, 기사 제목, 발행일자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 기사 리스트를 추출한 후, 기사 제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 검색 및 웹크롤링을 실시해 기사 본문 텍스트, PICK 기사 여부 등의 추가 데이터를 수집했다. 빅카인즈 검색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사들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에서 '연예' 내지는 '스포츠'로 분류된 기사는 제외했다. 같은 이유에서 기사 본문에서 캡션, 바이라인 등을 제외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본문에 아무 텍스트 내용이 없는 기사 또한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언론사 PICK 기사가 아닌 기사들을 표본에서 제외했다.

분석 기간(2019년 12월 31일~2022년 5월 9일)에 보도된 기사들에 대해 이상의 수집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15,223개의 기사가 표집되었다. 기사의 일별 분포가 요일에 따라 일정한 주기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유행 확산세에 따라서도 큰 편차를 보였기 때문에, 기사의 주별·요일별 분포에 맞춰 층화 표집한 934개의 기사(6.1%)를 최종 기사 표본으로 삼았다.

2) 코딩 절차 및 신뢰도

내용분석 코딩은 6명의 코더가 2명씩 팀을 이뤄 3팀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유사한 성격의 변인끼리 묶어 3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한 팀이 하나의 변인 그룹을 담당해서 코딩했다. 전체 15,223개 기사 중 최종 기사 표본($N = 934$)에 무작위로 표집되지 않은 기사를 대상으로 코더 훈련을 실시하고 신뢰도 데이터를 구성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크리펜도르프 알파(Krippendorff's α ; Krippendorff, 2019)를 사용해 측정했다.

3) 주요 변인의 측정

(1) 취재원 특성

먼저 취재원의 투명성과 관련해, 선행연구(김경모 등, 2018; 이나연, 2018; 정은령 등, 2020)를 바탕으로 취재원을 (가) 실명, (나) 준실명(실명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속/직책 등 추가 정보가 명시되어 해당 취재원의 신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경우), (다) 익명(취재원이 누구인지 전혀 유추할 수 없는 경우; 예: “질병관리청 관계자”)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취재원이 기사에 몇 명씩 등장하는지 분석했다. 먼저 기사에 등장하는 투명(실명 + 준실명) 취재원 수($\alpha = .975$; $M = 2.42$, $SD = 1.98$, $Min = 0$, $Max = 17$)와 익명 취재원 수($\alpha = .936$; $M = 0.32$, $SD = 0.87$, $Min = 0$, $Max = 9$)를 측정했다. 아울러,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취재원 수(투명 취재원 수 + 익명 취재원 수; $M = 2.74$, $SD = 2.25$, $Min = 0$, $Max = 18$) 중 투명 취재원 수의 비율 변인 또한 구성했다($M = 0.92$, $SD = 0.20$). 한편, 익명 취재원이 사용된 경우, 해당 취재원이 익명으로 인용된 이유를 밝혔는지 코딩한 후($\alpha = .853$), 익명 취재원 중 익명 처리 이유가 명시된 경우의 비율을 측정했다($M = 0.01$, $SD = 0.08$).

토대정보 제공 취재원의 투명성은 기사의 핵심적인 정보(토대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투명(실명 혹은 준실명) 취재원인지(82.3%), 익명 취재원인지(2.8%), 아니면 해당 취재원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14.9%)로 측정했다($\alpha = .751$). 또한, 기사에 등장하는 일반인 취재원 수($\alpha = .786$; $M = 0.19$, $SD = 0.83$, $Min = 0$, $Max = 10$)와 의료·보건인 취재원 수($\alpha = .873$; $M = 0.57$, $SD = 0.92$, $Min = 0$, $Max = 6$)를 측정했다. 직업이 질병관리청 공무원, 질병관리청을 제외한 방역당국 공무원, 의료·보건 전문가, 국제 보건기구 소속 직원일 경우 ‘의료·보건인’, 특정한 직업 제시 없이 일반 시민으로 소개된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코딩했다.

(2) 관점 다양성과 분석 중심성

기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얼마나 다양한 관점(기사 주제와 관련해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견: 김경모 등, 2018, 58쪽)을 소개했는지 측정했다. 분석 대상 기사가 코로나19 기사라는 점에서 사실 정보만을 전달하는 기사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먼저 기사 주제와 관련해 특정 관점을 제시한 기사(48.0%)와 제시하지 않은 기사(52.0%)를 구분($\alpha = .924$)한 다음, 관점을 제시한 기사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기사가 둘 이상의 관점을 제시했는지(복합 관점: 31.25%), 하나의 관점을 제시했는지(단일 관점: 68.75%) 코딩했다($\alpha = .877$).

기사 내용의 구성 방식이 사건 중심적인지(84.6%) 분석 중심적인지(15.4%) 측정했다($\alpha = .876$). 코로나19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한 기사나 상황에 대해 기술, 묘사하며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사건 중심 기사, 코로나19와 관련해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원인 진단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진 기사는 분석 중심 기사로 분류했다(김경모 등, 2018; Barnhurst & Mutz, 1997 참조).

(3) 한국 언론의 부정적 관행

직접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사용 빈도는 큰따옴표를 사용해 취재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구절을 서술하면서 기자의 주관에 담긴 술어를 사용한 문장의 수로 측정했다($\alpha = .864$; $M = 1.20$, $SD = 1.80$, $Min = 0$, $Max = 18$). 기존 연구(김경모 등, 2018; 이나연, 2018)를 참조해, ‘밝혔다’, ‘말했다’, ‘언급했다’, ‘발표했다’, ‘답했다’, ‘진술했다’, ‘했다’, ‘전했다’ 등 8개 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술어는 모두 주관적 술어로 정의했다.

익명 취재원의 부정적 직접 인용구 사용은 익명의 취재원이 특정 대상을 비판하거나 비난한 내용을 직접 인용한 문장의 수로 측정했다($\alpha = 1$; $M = 0.03$, $SD = 0.26$, $Min = 0$, $Max = 6$).

무주체 피동형 문장 사용은 문장 술어의 주체가 적시되지 않은 피동형 문장의 수로 측정했다(예: ‘~로 예상된다’; $\alpha = 1$; $M = 0.57$, $SD = 1.27$, $Min = 0$, $Max = 23$). 문법적으로는 피동형이 아니더라도, 행위나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을 개입시키는 표현(예: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무주체 피동형 문장으로 정의했다.

제목의 직접 인용구 사용은 기사의 주제목, 부제목, 문중제목(소제목)에 큰따옴표로 표기해 발언을 인용하거나, 인용된 발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발언인 것처럼 서술했는지로 측정했다($\alpha = 1$; 48.4% 사용). 단, 강조 내지는 의미 재해석을 위해 사용된 작은따옴표와 간접인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했다.

(4) 감염병 보도의 윤리규범

기사가 <감염병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측정했다. 먼저, 기사에서 효능감 정보, 구체적으로 감염예방 행동수칙(예: 마스크 착용하기; $\alpha = 1$; 7.9% 제공), 밀접접촉자 및 의심증상자 행동수칙(예: 자가진단키트 검사; $\alpha = 1$; 2.0% 제공), 치료 관련 정보(예: 중증 환자 입원 치료, 진료 지원 어플리케이션 설치; $\alpha = 1$; 0.6% 제공)가 제시되었는지 코딩했다(Hart & Feldman, 2014 참조). 기사에서 이 중 하나라도 언급되면 효능감 정보

가 제공된 것으로 분류했다(9.2% 제공). 기사가 코로나19 관련 위협 정보를 제공했는지, 즉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언급했는지 또한 측정했다($\alpha = .758$; 30.8% 제공).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예: 경증, 중증, 후유증)만을 포함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영향은 제외했다.

다음으로, 신상정보 언급 여부 측정을 위해, 확진자 관련 기사(기사 본문 중 '확진자', '확진 판정', '양성 판정' 키워드 중 한 개 이상이 포함된 기사; $n = 586$)에서 확진자 개인이나 확진자가 소속된 집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예: 나이, 성별, 거주지역, 직업, 종교)를 제시했는지 코딩했다($\alpha = .841$; 24.9% 제시).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자극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측정했다($\alpha = .738$; 17.6% 사용). <감염병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 및 선행 연구(Ng & Zhao, 2020)에서 제시한 자극적 표현 목록(예: 패닉, 대혼란, 재난)을 바탕으로, 기사에서 해당 표현 혹은 그와 유사한 자극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코딩했다. 다만, 자극적 표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맥락상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이 공식 기구나 법의 명칭에 '재난'이 포함)에는 자극적 표현으로 코딩하지 않았다.

4) 분석방법

종속변인이 범주형 변인인 경우에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예: 관점 다양성) 내지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 예: 자극적 표현 사용 여부), 비율 변인인 경우에는 분수 로지스틱 회귀 모형(fractio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예: 투명 취재원 비율)을 사용했다. 종속변인이 횡수형 변인인 경우에는 음이항 회귀 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사용했는데(예: 무주체 피동형 문장수), 이 과정에서 기사 글자수의 자연로그 값을 오프셋으로 사용해 기사 길이의 효과를 통제했다.

4. 연구결과

1) 기사 표본의 기본 정보

전체 934개 기사 중, 신문사에서 온라인에만 업로드하는 '온라인 전용' 기사가 가장 많았다(60.8%). 다음으로, 신문의 지면 기사(21.8%), 방송 기사(17.3%) 순으로 많았다(<Table

1)). 코로나19 유행 시기별 기사 분포를 살펴보면, 대구·경북·수도권 유행기인 1차(30.9%), 전국적 확산기인 3차(27.3%), 델타 변이 확산기인 4차(21.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도권 확산기인 2차(12.7%)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기인 5차(7.9%)가 많았다(〈Table 1〉). 시기별 기사 분포는 매체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chi^2[8] = 9.64, p = .291$).

Table 1. Number of Articles by News Media and COVID-19 Timeline

	총계	코로나19 유행 시기				
		1기	2기	3기	4기	5기
방송 기사	162	54	16	44	35	13
신문 지면 기사	204	50	25	57	50	22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	568	185	78	154	112	39
총계	934	289	119	255	197	74

Note. 1기(19/12/31~20/8/11), 2기(20/8/12~20/11/12), 3기(20/11/13~21/7/6), 4기(21/7/7~22/1/29), 5기(22/1/30~22/5/29).

기사 길이는 매체별로 달랐다($\chi^2[2] = 164.77, p < .001$; 〈Table 2〉). 신문 지면 기사가 방송 기사(IRR [incidence rate ratio] = 2.15, 95% CI [1.90, 2.44], $p < .001$)와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IRR = 1.66, 95% CI [1.51, 1.83], $p < .001$)보다 길었다.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 또한 방송 기사보다 길었다(IRR = 1.30, 95% CI [1.17, 1.44], $p < .001$). 매체에 따라 보도된 기사의 종류 또한 다른 양상을 보였다($\chi^2[4] = 51.12, p < .001$; 〈Table 2〉). 신문 지면 기사는 방송 기사 및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에 비해 의견 기사를 더 많이 보도한 반면, 속보 기사는 덜 보도했다.

Table 2. Article Length and Type

	길이(글자수)	기사 유형		
		일반 기사	속보 기사	의견 기사
방송 기사($n = 162$)	817.78	93.2%	6.8%	0%
신문 지면 기사($n = 204$)	1760.64	95.1%	0%	4.9%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n = 568$)	1060.65	92.4%	7.6%	0%
총계 ($N = 934$)	1171.41	93.1%	5.8%	1.1%

2) 취재원 특성

취재원 수는 평균 2.74개로(〈Table 3〉),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3.33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체별 취재원 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2] = 3.60, p = .166$). 투명 취재원은 평균 2.42개로(〈Table 3〉),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2.6개; 김경모 등, 2018)와 비슷했으며, 매체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2] = 4.49, p = .106$). 전체 취재원 수와 투명 취재원 수는 모두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보다 적었다(각각 4.10~12.14개, 3.8~8.4개). 익명 취재원은 평균 0.32개였으며, 매체별로 달랐다($\chi^2[2] = 6.77, p = .034$; 〈Table 3〉). 신문 지면 기사가 방송 기사(IRR = 2.03, 95% CI [1.16, 3.56], $p = .014$)와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IRR = 1.37, 95% CI [0.96, 1.94], $p = .080$)보다 익명 취재원을 더 많이 사용했으며, 방송 기사와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는 차이가 없었다($p = .143$).

Table 3. Number of Cited Sources by Source Type

	전체 취재원 수	투명(실명+준실명) 취재원 수	익명 취재원 수
코로나19 기사(본 연구)			
방송 기사($n = 162$)	1.76 (2.54)	1.62 (2.35)	0.14 (0.19)
신문 지면 기사($n = 204$)	4.04 (2.72)	3.44 (2.32)	0.60 (0.39)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n = 568$)	2.55 (2.86)	2.28 (2.57)	0.27 (0.29)
총계 ($N = 934$)	2.74 (2.78)	2.42 (2.46)	0.32 (0.31)
신문 1면 기사(김경모 등, 2018)			
국내 일간지	3.33	2.6	0.73
뉴욕 타임스	12.14	8.4	3.74
더 타임스	6.11	4.3	1.81
아사히신문	4.10	3.8	0.30

Note. 기사에 사용된 취재원 수의 평균값을 보고했음. 괄호 안은 글자수의 자연로그 값을 오픈셋으로 사용해 계산한 취재원 수의 예측값임. 김경모 등(2018)은 평균 익명 취재원 수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취재원 수에서 투명 취재원 수를 뺀 값을 제시했음.

취재원이 1명 이상 인용된 기사($n = 890$)를 대상으로, 전체 취재원 중 투명 취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했다(〈Table 4〉). 투명 취재원 비율은 평균 91.7%로, 매체별로 달랐다($\chi^2[2] = 13.63, p = .001$). 신문 지면 기사가 방송 기사(OR [odds ratio] = 0.49, 95% CI [0.27, 0.86], $p = .014$)와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OR = 0.52, 95% CI [0.36, 0.75], $p < .001$)보다 투명 취재원 사용 비율이 낮은(익명 취재원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기사와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791$).

익명 취재원을 인용한 172개 기사 중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를 명시한 기사는 3개(1.7%)로, 정치기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이나연 등, 2021)에서 보고된 1.3%와 비슷했다((Table 4)). 이 변인은 변량이 거의 없어 매체별 차이에 대한 추리 통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Table 4. Source Transparency

	투명 취재원 비율 ^a	이유가 명시된 익명 취재원 비율 ^b
방송 기사	93.3% (n = 139)	0.0% (n = 19)
신문 지면 기사	87.1% (n = 196)	0.3% (n = 60)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	92.8% (n = 555)	1.4% (n = 93)
총계	91.7% (N = 890)	0.9% (N = 172)

^a 취재원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만 분석에 포함했으며, 각 기사의 전체 취재원 중 투명 취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값을 보고했음. ^b 익명 취재원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만 분석에 포함했으며, 각 기사의 익명 취재원 중에서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가 명시된 취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값을 보고했음.

기사의 토대 정보를 제공한 핵심 취재원의 투명성을 살펴본 결과((Table 5)), 82.3%는 투명(실명+준실명) 취재원을, 2.8%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했으며, 14.9%는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토대 정보 제공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은 기사가 14.9%를 차지한 것은 해당 기사의 비중이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중에서는 1.2%,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중에서는 0.0%였던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토대 정보 제공 취재원의 투명성은 매체별로 달랐다($\chi^2[4] = 94.91, p < .001$). 토대 정보 제공 취재원이 (준)실명인 기사의 비율은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가 가장 높았으며, 해당 취재원이 익명인 기사의 비율은 신문 지면 기사가 가장 높았다. 토대 정보 제공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은 기사의 비율은 방송 기사가 가장 높았다.

Table 5. Transparency of the Primary Source

	취재원 있음		취재원 없음
	투명 취재원	익명 취재원	
코로나19 기사(본 연구)			
방송 기사(n = 162)	62.3%	0.6%	37.0%
신문 지면 기사(n = 204)	77.5%	5.9%	16.7%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n = 568)	89.8%	2.3%	7.9%
총계 (N = 934)	82.3%	2.8%	14.9%
신문 1면 기사(김경모 등, 2018)			
국내 일간지	90.5%	8.4%	1.2%
뉴욕 타임스	100.0%	0.0%	0.0%
더 타임스	96.3%	3.7%	0.0%
아사히신문	98.6%	1.4%	0.0%

일반인 취재원은 기사당 평균 0.19명을 인용해(Table 6),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0.16명)와 유사하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0.11~0.81명)보다는 다소 적은 편이었다. 매체별 일반인 취재원 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2) = 0.58, p = .750$).

Table 6. Genreal Public Sources

	일반인 취재원
코로나19 기사(본 연구)	
방송 기사($n = 162$)	0.14 (0.20)
신문 지면 기사($n = 204$)	0.31 (0.18)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n = 568$)	0.16 (0.15)
총계 ($N = 934$)	0.19 (0.17)
신문 1면 뉴스 (김경모 등, 2018)	
국내 일간지	0.16
뉴욕 타임스	0.81
더 타임스	0.11
아사히신문	0.25

Note. 기사에 사용된 일반인 취재원 수의 평균값을 보고했음. 괄호 안은 글자수의 자연로그 값을 오프셋으로 사용해 계산한 일반인 취재원 수의 예측값임.

전체 사람 취재원 중 일반인 취재원과 의료·보건인 취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했다(Table 7). 전체적으로 의료·보건인 취재원의 비중이 더 높았다. 매체 간 차이는 일반인 취재원($\chi^2(2) = 0.55, p = .760$) 및 의료·보건인 취재원($\chi^2(2) = 4.57, p = .102$) 비율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7. Types of Human Sources

	일반인 취재원	의료·보건인 취재원
방송 기사($n = 104$)	9.6%	47.8%
신문 지면 기사($n = 174$)	8.5%	42.8%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n = 404$)	7.6%	37.8%
총계 ($N = 682$)	8.2%	40.6%

Note. 사람 취재원을 1명 이상 포함한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각 기사의 전체 사람 취재원 중 해당 종류의 취재원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평균값을 보고했음.

3) 관점 다양성과 분석 중심성

관점 다양성은 전체 기사의 15.0%가 복합적 관점을 제시해(Table 8),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17.1%)와 비슷하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13.9%~58.3%)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매체별로 관점 다양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chi^2[4] = 44.03, p < .001$), 신문 지면 기사가 방송 기사와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보다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 기사의 비중이 높고 단순 정보 전달성 기사의 비중은 낮았다.

Table 8. Diversity of Perspectives

코로나19 기사(본 연구)	둘 이상의 관점		하나 이하의 관점	
	복합	완전 단일	완전 단일	단순 정보 전달
방송 기사($n = 162$)	10.5%	25.3%	25.3%	64.2%
신문 지면 기사($n = 204$)	24.5%	42.2%	42.2%	33.3%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n = 568$)	12.9%	31.9%	31.9%	55.3%
총계 ($N = 934$)	15.0%	33.0%	33.0%	52.0%

신문 1면 기사(김경모 등, 2018)	둘 이상의 관점		하나 이하의 관점	
	복합	대체로 단일	완전 단일 + 단순 정보 전달	완전 단일 + 단순 정보 전달
국내 일간지	17.1%	22.9%	59.9%	59.9%
뉴욕 타임스	58.3%	25.0%	16.7%	16.7%
더 타임스	40.7%	31.5%	27.8%	27.8%
아사히신문	13.9%	29.2%	56.9%	56.9%

대부분의 기사가 사건 중심 기사로 나타나(84.6%: <Table 9>),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90.6%)와는 비슷하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29.2%~68.5%)보다는 높은 양상을 보였다. 기사 내용의 분석 중심성은 매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chi^2[2] = 128.56, p < .001$). 신문 지면 기사가 방송 기사 및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보다 더 분석 중심적이었다.

Table 9. Event-Centered vs. Analysis-Centered Coverage

	사건 중심	분석 중심
코로나19 기사		
방송 기사($n = 162$)	93.8%	6.2%
신문 지면 기사($n = 204$)	59.3%	40.7%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n = 568$)	91.0%	9.0%
총계 ($N = 934$)	84.6%	15.4%
신문 1면 기사(김경모 등, 2018)		
국내 일간지	90.6%	9.4%
뉴욕 타임스	29.2%	70.8%
더 타임스	68.5%	31.5%
아사히신문	48.6%	51.4%

4) 한국 언론의 부정적 관행

직접 인용구에서 주관적 술어를 사용한 문장 수는 기사당 평균 1.20개로(〈Table 10〉),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1.40개)와 비슷하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0.72개~1.22개)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이었다. 기사의 길이를 통제했을 때도 매체 간 차이는 유의했다($\chi^2(2) = 87.52, p < .001$).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가 방송 기사(IRR = 5.35, 95% CI [3.64, 7.87], $p < .001$)와 신문 지면 기사(IRR = 1.61, 95% CI [1.33, 1.95], $p < .001$)보다 직접 인용구에 주관적 술어를 더 자주 사용했으며, 신문 지면 기사도 방송 기사보다 직접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가 더 많았다(IRR = 3.32, 95% CI [2.21, 4.99], $p < .001$).

Table 10. Problematic Practices in Korean Journalism

	직접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a	익명의 부정적 직접 인용구 ^b	무주체 피동형 문장 ^a	제목의 직접 인용구 ^b
코로나19 기사				
방송 기사($n = 162$)	0.20 (0.29)	0.00	0.33 (0.49)	41.4%
신문 지면 기사($n = 204$)	1.47 (0.96)	0.04	1.00 (0.66)	52.9%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n = 568$)	1.38 (1.55)	0.03	0.48 (0.53)	48.8%
총계 ($N = 934$)	1.20 (1.20)	0.03	0.57 (0.57)	48.4%
신문 1면 기사(김경모 등, 2018)				
국내 일간지	1.40	0.32	1.19	59.1%
뉴욕 타임스	1.22	0.00	0.00	2.8%
더 타임스	0.72	0.15	0.00	0.0%
아사히신문	0.85	0.10	0.82	13.9%

^a 기사에 포함된 해당 문장수의 평균값을 보고했음. 괄호 안은 글자수의 자연로그 값을 오프셋으로 사용해 계산한 문장 개수의 예측값임. ^b 제목에 직접 인용구를 사용한 기사의 비율을 보고했음.

익명 취재원의 부정적 직접 인용구는 기사당 평균 0.03개로 나타나(〈Table 10〉),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0.32개) 및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0.00개~0.15개)와 비슷했다. 한편, 이러한 인용구를 사용한 기사가 전체 934개 기사 중 14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매체별 차이에 대한 추리 통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기사당 평균 0.57개를 사용해(〈Table 10〉),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1.19개)보다는 다소 적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0.00개~0.82개)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었다. 매체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2) = 3.12, p = .210$).

전체 기사 중에서 제목, 부제목, 문중제목에 직접 인용구를 사용한 기사의 비율은 48.4%로(〈Table 10〉),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59.1%; 김경모 등, 2018)와 비슷하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0.0%~13.9%)보다는 높았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신문 지면 기사에서 제목에 직접 인용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chi^2[2] = 4.93, p = .085$).

5) 감염병 보도의 윤리규범

〈감염병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이 제정된 2020년 4월 28일 이전에 비해 보도준칙을 준수하는 기사의 비율이 증가하는지, 이에 더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도준칙을 준수하는 기사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도준칙 관련 변인들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효과도 함께 분석했다. 시기 구분은 앞선 기사의 기본 정보 절에서 언급한 기준을 따랐으며, 추가적으로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일을 기준으로 1차 유행기를 보도준칙 이전과 보도준칙 이후 두 시기로 나누었다.

효능감 및 위협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11〉), 전체적으로 효능감 정보보다 위협 정보를 더 빈번하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 정보를 제공한 기사(30.8%) 중 효능감 정보 또한 함께 제공한 기사의 비율은 8.7%로, 전체 기사의 2.7%가 위협 정보와 효능감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 효능감 및 위협 정보 보도 양상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따라 달랐다($\chi^2[15] = 47.90, p < .001$). 〈감염병 보도준칙〉 발표 이후 효능감 정보를 제공한 기사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위협 정보와 효능감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기사의 비율은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5차 유행기에 다른 시기보다 더 높았다. 한편, 효능감 및 위협 정보 보도와 관련한 매체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6] = 4.02, p = .674$).

Table 11. Threat Information and Efficacy Information

코로나19 유행 시기	효능감 및 위협 정보 제공			
	둘 다 없음	위협 정보	효능감 정보	둘 다 제공
1기(보도준칙 이전; n=185)	65.9%	28.6%	3.2%	2.2%
1기(보도준칙 이후; n=104)	53.8%	32.7%	10.6%	2.9%
2기(n = 119)	58.8%	26.1%	10.9%	4.2%
3기(n = 255)	71.4%	22.4%	5.1%	1.2%
4기(n = 197)	56.9%	34.5%	7.6%	1.0%
5기(n = 74)	58.1%	27.0%	4.1%	10.8%
총계 (N = 934)	62.6%	28.2%	6.5%	2.7%

Note. 1기(19/12/31~20/8/11), 2기(20/8/12~20/11/12), 3기(20/11/13~21/7/6), 4기(21/7/7~22/1/29), 5기(22/1/30~22/5/29).

확진자 신상 정보 언급의 경우(Table 12), 확진자 관련 기사 전체 586개 중 146개 기사(24.9%)가 확진자 개인 내지는 집단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 정보 언급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했으며($\chi^2[5] = 42.92, p < .001$), 매체에 따른 차이($p = .321$) 및 시기와 매체의 상호작용($p = .741$)은 유의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가 진행될수록 확진자 신상 정보를 언급하는 비율이 계단식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기(0.17), 4기(0.14), 5기(0.07)의 기사가 1기(〈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이전 = 0.38; 이후 = 0.31) 및 2기(0.44) 기사보다 신상 정보를 덜 언급했다($ps < .021$).

Table 12. Predicting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ational Language Use

	확진자 신상 정보 언급	자극적 표현
매체 종류		
방송 기사 vs. 신문 지면 기사	0.89 (0.44, 1.78)	0.55* (0.33, 0.94)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 vs. 신문 지면 기사	1.30 (0.79, 2.15)	0.45*** (0.30, 0.67)
코로나19 유행 시기		
1기(보도준칙 이후) vs. 1기(보도준칙 이전)	0.75 (0.40, 1.41)	4.29*** (2.25, 8.16)
2기 vs. 1기(보도준칙 이전)	1.28 (0.70, 2.32)	1.82+ (0.92, 3.63)
3기 vs. 1기(보도준칙 이전)	0.34*** (0.19, 0.60)	2.28** (1.28, 4.06)
4기 vs. 1기(보도준칙 이전)	0.27*** (0.14, 0.50)	1.54 (0.82, 2.89)
5기 vs. 1기(보도준칙 이전)	0.13*** (0.04, 0.39)	1.44 (0.64, 3.25)
McFadden R^2	.08	.05
N	586 ^a	934

Note.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보고했음. 1기(19/12/31~20/8/11), 2기(20/8/12~20/11/12), 3기(20/11/13~21/7/6), 4기(21/7/7~22/1/29), 5기(22/1/30~22/5/29). ^a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기사만 분석 대상에 포함했음.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934개 기사 중 164개 기사(17.6%)가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적 표현(Table 12) 사용에 대한 매체별 차이($\chi^2[2] = 15.93, p < .001$) 및 시기별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5] = 23.92, p < .001$). 매체와 시기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p = .214$). 구체적으로, 신문 지면 기사(0.27)가 방송 기사(0.17)와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0.14)보다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기사의 비율이 높았으며($ps < .028$), 방송 기사와 온라인 기사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p = .383$). 코로나19 유행 시기별로는 1기 중 〈감염병 보도준칙〉이 제정된 직후 시기(0.32)가 1기 중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이전 시기(0.10) 및 다른 모든 시기들보다(2기 = 0.17, 3기 = 0.20, 4기 = 0.15, 5기 = 0.14)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기사

의 비율이 높았으며($ps < .018$), 2기 및 3기 기사 역시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이전 시기 기사보다 자극적 표현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ps < .088$).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이 '좋은 저널리즘'의 일반적 기준과 감염병 보도 관련 규범적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어떠한지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방송 기사, 신문 지면 기사,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 사이에 메시지 특성과 관련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기사에 사용된 취재원의 수는 평균 2.74명으로, 선행 연구(김경모 등, 2018)에서 보고된 국내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기사들과 큰 차이가 없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언론이 해외 주요 언론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취재원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코로나19 보도 맥락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다. 또한, 정치 기사에 대한 기존 연구(1.3%: 이나연 등, 2021)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기사에서도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경우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한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나(1.7%), 필요성(불가피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관행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되었음을 발견했다.

토대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투명성은 국내 및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김경모 등, 2018)에 비해 낮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사 중 14.9%는 토대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없었으며, 특히 방송 기사의 경우 37.0%가 토대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통계치(예: 일일 확진자 수)를 보도하면서 해당 통계치를 발표한 기관명을 밝히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 기사의 경우 지면 기사나 온라인 기사에 비해 출처를 생략하고 통계치만 보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사의 경우,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방역당국에서 발표된 자료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수용자의 기사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 취재원 수는 평균 0.19명으로, 선행 연구(김경모 등, 2018)에서 관찰한 0.16명과 비슷했다.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의 범위와 정도를 감안했을 때 코로나19 뉴스에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전과 비슷한 정도로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소 아쉽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언론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해외 언론의 코로나19 보도에서는 일반인 취재원을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로 사용했는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김경모 등, 2018)의 내용분석 결과와 비교해 해외 주요 언론의 코로나19 보도에서 일반인 취재원 사용 정도가 이전보다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혹은 비슷한지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함의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의 관점 다양성과 분석 중심성의 경우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와 비슷하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김경모 등, 2018)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코로나19 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현황, 예방 수칙, 과학적 사실 등의 단순 정보 전달성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이를 종합 일간지 1면 기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김경모 등, 2018)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대국민 지원금, 방역 패스와 같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고, 종합 일간지 1면에도 정보 전달 위주의 기사가 많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가 코로나19 시기 한국 언론이 공론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갖는 함의는 적지 않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사 중 논쟁적 사안을 다룬 기사에 초점을 맞춰, 기사의 관점 다양성 및 분석 중심성에 더해 보도 심층성(원인·과정·결과·전망: 김경모 등, 2018) 또한 분석함으로써, 팬데믹 시기 언론이 공적 의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깊이 있게 다뤘는지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한국 언론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부정적 관행들이 코로나19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국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와 비슷하고, 해외 주요 일간지 1면 기사(김경모 등, 2018)에 비해서는 좀더 빈번히 발견됐다. 특히, 직접 인용구에서 주관적인 슬어를 사용한 문장이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에서 가장 많았다는 결과는 온라인 전용 기사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동시에 제목에 직접 인용구를 사용하는 관행은 신문 지면 기사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면,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의 부정적 관행으로 지적되어온 표현 관행들이 매체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일반 기사를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염병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 준수와 관련해서는, 먼저 위협 정보가 효능감 정보에 비해 더 많이 제공되었으며, 위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효능감 정보도 같이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수용자가 코로나19라는 위협에 따른 공포를 통제하는 데 몰두하게 함으로써 해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Witte, 1992). 하지만 〈감염병 보도준칙〉이 제정된 이후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비율이 증가했

고, 특히 더 최근의 기사들은 위협정보와 효능감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사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점차 전반적으로 기사의 품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확진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한 기사가 전체 확진자 관련 보도 중 약 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기사 역시 전체 기사의 17.6% 정도로 적지 않았다. 비록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이후 확진자 신상 관련 정보를 언급하는 기사와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기사의 비율 모두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기사가 확진자 신상 관련 정보 보호와 자극적 표현 사용 지양 측면에 있어 다소 소홀했다는 점에서, 이 두 요소 모두 이후의 감염병 및 재난 보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매체에 따른 차이이다.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 기사의 비중, 분석에 집중한 기사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지면 기사가 방송 기사나 온라인 기사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지만, 직접 인용구에 주관적 술어를 사용하거나 기사 제목에 직접 인용구를 사용하는 ‘따옴표 저널리즘’, 그리고 자극적 표현의 사용 측면에 있어서는 지면 기사가 다른 두 매체보다 좀 더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매체별 기사의 품질의 차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동일한 언론사에서 생산한 신문 지면 기사와 온라인 전용 신문 기사의 차이에 대해 기사 작성 과정 및 관행을 바탕으로 이론화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로나19 보도와 관련한 ‘더 좋은’ 저널리즘을 위해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기사의 비중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도록 취재원의 수와 종류 모두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취재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인용구에 주관적 술어를 사용하거나 제목에 직접 인용구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협 정보와 함께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며, 확진자 신상 관련 정보의 언급과 자극적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가지며, 따라서 연구결과는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앞서도 논의했듯이, 본 연구가 사용한 분석틀은 기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괄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 결과는 코로나19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결정적인 경험적 근거로 해석될 수 없으며, 품질과 관련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탐색적으로 살펴본 초기 연구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

에서는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한 기사의 품질의 다른 요건들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품질 요건들을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높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코로나19 기사와 비교 대상이 된 국내 종합 일간지의 일반 기사(김경모 등, 2018) 사이에는 약 4-6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 정은령 등(2020)의 연구에서 같은 시기의 팩트체크 기사와 일반 해설 기사를 표집해 내용분석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시기에 보도된 코로나19 이외의 기사를 함께 분석했다면 보다 타당한 비교가 가능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의 비(非) 코로나19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내용분석 결과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외국 주요 언론의 코로나19 기사를 분석하는 대신 1면 기사에 대한 선행 연구(김경모 등, 2018) 결과를 국내 언론의 코로나19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와 비교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 대상 기사와 같은 시기에 보도된 해외 언론의 코로나19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코로나19 기사의 품질을 부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탐색적인 분석을 실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코로나19 기사의 품질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기사의 품질 관련 이론과 방법론을 발전시킬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 Anderson, P. J. (2014). Defining and measuring quality news journalism. In P. J. Anderson, G. Ogola, & W. Michael (Eds.), *The future of quality news journalism* (pp. 7-34). New York, NY: Routledge.
- Barnhurst, K., & Mutz, D. (1997). American journalism and the decline in event-centered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7(4), 27-53. doi:10.1111/j.1460-2466.1997.tb02724.x.
- Bigsby, E., & Albarracín, D. (2022). Self- and response efficacy information in fear appeals: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72(2), 241-263. doi:10.1093/joc/jqab048.
- Chong, E. R., Choi, J. S., & Park, Y.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fact-checking and explanatory news on COVID-19: Focusing on contextuality and transparency.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7(3), 139-193. doi:10.36494/JCAS.2020.09.37.3.139. [정은령·최지수·박유진 (2020). 코로나19 팩트체크 기사와 해설 기사의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맥락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7권 3호, 139-193.]
- Chosun ilbo. (2017). *Chosun ilbo ethical guidelines*. Retrieved 4/13/23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1251.html [조선일보 (2017).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 Ham, S., Kim, H., Kim, Y. (2021). A big-data analysis of media coverage on COVID-19 :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es by issue cycle and political orient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5(1), 148-189. doi:10.20879/kjics.2021.65.1.148. [함승경·김혜정·김영욱 (2021). 코로나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이슈 주기 및 언론사 정치적 지향에 따른 주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적용. <한국언론학보>, 65권 1호, 148-189.]
- Hankyoreh. (2020). *Hankyoreh-media reporting guidelines*. Retrieved 4/13/23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44867.html> [한겨레 (2020). <한겨레미디어 취재보도준칙>.]
- Hart, P. S., & Feldman, L. (2014). Threat without efficacy? Climate change on U.S. network news. *Science Communication*, 36(3), 325-351. doi:10.1177/1075547013520239.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2021, January 21). *Guidelines for reporting on Covid-19 vaccines*. Retrieved 4/13/23 from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guidesmanuals/article/guidelines-for-reporting-on-covid-19-vaccines.html>
- International Media Support. (2020, April 3). *IMS Covid-19 task force: Guidelines for reporting on Covid-19*. Retrieved 4/14/23 from <https://www.mediasupport.org/wp-content/uploads/2020/04/IMS-g>

uide-for-reporting-on-Covid-19.pdf

-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2020).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guidelines*. Retrieved 4/13/23 from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한국기자협회 (2020). <감염병 보도준칙>.]
- Kim, G. (2022). South Korea's unique tracing measures against COVID-19: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terms of good law.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71, 197-226. doi:10.33446/KJLS.71.6. [김지현 (2022). 우리나라 고유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확진자 동선 공개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71권, 197-226.]
- Kim, K., Park, J. Y., Bae, J. G., Lee, N. Y., & Lee, J. G. (2018). *Quality journalism*.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김경모·박재영·배정근·이나연·이재경 (2018).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Korea Press Foundation. (2022). *Media users in Korea 2022*.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2022 언론수용자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Kovach, B., & Rosenstiel, T. (2021).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 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4th ed.). New York, NY: Crown. 이재경(역)(2021).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Krippendorff, K. (2019).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Lacy, S., & Rosenstiel, T. (2015). *Defining and measuring quality journalism*. New Brunswick, NJ: Rutgers Schoo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Lee, N. Y. (2018). Scientific objectivity, formal objectivity, Korean formal objectivity :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sources and quotations used in Korean newspapers and New York Times and The Times of Lond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2), 112-142. doi:10.20879/kjics.2018.62.2.004. [이나연 (2018). 과학적 객관주의, 형식적 객관주의, 한국형 형식적 객관주의. <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112-142.]
- Lee, N. Y., Kim, C., & Kim, J. (2021). A study on the journalism practice of anonymous news sources of political news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newspapers and the New York Tim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5(3), 5-38. doi:10.20879/kjics.2021.65.3.001. [이나연·김창숙·김지현 (2021). 정치기사 익명 취재원 표기 관행: 미국 뉴욕타임스와 한국 주요 일간지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5권 3호, 5-38.]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The 2015 MERS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Learning from MER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2016).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세종: 보건복지부.]
- Ng, Y.-L., & Zhao, X. (2020). The human alarm system for sensational news, online news headlines, and associated generic digital footprints: A uses and gratifications approach. *Communication Research*, 47(2), 251-275. doi:10.1177/0093650218793739.
- Park, J. H. (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rona19' news frame based on ideological orientation of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4), 40-85. doi:10.20879/kjcs.2020.64.4.002.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40-85.]
- Pew Research Center. (2005). *State of the news media*.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 Sternadori, M. M., & Thorson, E. (2009) Anonymous sources harm credibility of all stori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30(4), 54-66. doi:10.1177/073953290903000405.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9(4), 329-349. doi:10.1080/03637759209376276.

최초 투고일 2023년 04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7월 13일
 논문 수정일 2023년 08월 01일

부록. 빅카인즈 검색 키워드 목록

핵심 키워드 (15개)

COVID-19, COVID19, 신종바이러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우한, 우한폐렴, 중국 AND 바이러스,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비드, 코비드-19, 코비드19

일반 키워드 (139개)

K-방역, mRNA, PCR, QR코드, WHO, XE, 감염경로, 거리두기, 검체채취, 격리, 격리병상, 격리시설, 격리자, 격리해제, 고위험군, 국민지원금, 기저질환자, 긴급재난지원금, 누적사망자, 누적확진자, 다중이용시설, 대면진료, 대유행, 델타, 돌파감염, 롱 AND 코비드, 롱코비드, 마스크, 먹는 AND 치료제, 모더나, 무증상자, 미접종자, 밀접접촉자, 방대본, 방역, 방역당국, 방역인력, 방역정책, 방역지침, 방역패스, 백신, 백신패스, 변이, 병상가동률, 보건당국, 부스터샷, 부작용, 비대면, 사적모임, 생활지원금,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세계보건기구, 수퍼면역, 수퍼항체, 수퍼면역, 슈퍼항체, 스텔스, 신규확진, 신규확진자, 신속항원검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양성률, 양성판정, 양성확인서, 엔데믹, 역학조사, 영업시간, 오미크론, 완치, 완치자, 외출자제, 우세종, 우한코로나, 원격강의, 원격수업, 원격진료, 위드코로나, 위중증, 유전자증폭, 유증상자, 음성판정, 음성확인서, 음압병실, 인원제한, 일반병상, 일상회복, 자가검사키트, 자가격리, 자가진단키트, 잔여백신, 잔여병상, 재감염, 재난지원금, 재택근무, 재택치료, 전담병상, 전지출입명부, 전파력, 전파율, 접종률,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증병상, 중증화율, 중환자, 중환자병상, 지배종, 지원금, 진단검사,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집단감염, 집단면역, 집합금지, 집합제한, 추가접종, 출입명부, 치료제, 치명률, 코로나블루, 코백스, 팩스로비드, 판데믹, 팬데믹, 포스트코로나, 항원검사, 항체치료제,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기관, 화이자, 확산세, 확진, 확진자, 후유증